

 <b>인천광역시</b>		<b>보 도 자 료</b>		<b>재외동포청 최적지</b> <b>인천</b> <b>뿐입니다</b>
배포일자		2023년 3월 16일(목) 총 2매		
담당 부서	위생정책과	담당자	• 위생정책팀장 • 담당자	임미숙 ☎440-2761 박미란 ☎440-2763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상태가 우수한 음식점에는 별(★)이 반짝

- 아파트상가, 먹자거리 등에 840곳 추가지정해 2,364곳으로 확대 예정 -
- 기존 지정업체 현장평가해 기준 미달업소 지정 취소, 지도서비스도 준비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올해 일상에서 시민들이 쉽게 찾는 생활권(아파트상가, 먹자거리)을 중심으로 840곳 음식점을 위생등급 지정 업소로 추가해 총 2,364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대상으로 음식점 위생상태를 평가해 점수에 따라 등급(매우우수 ★★★★★, 우수★★, 좋음 ★)을 부여하는 제도다.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높일 뿐만 아니라 식중독 예방, 소비자의 음식점 선택권 보장을 위해 2017년 5월 도입됐다.

시는 객석, 객실, 조리장등의 위생상태 64개 항목을 평가해 80점 이상이면 등급을 지정해 지정서 및 표지판을 발급해 준다.

시는 올해 아파트상가, 먹자거리 등 시민들이 많이 찾는 지역을 중심으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840곳을 신규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위생등급 지정이 어려운 소규모 영업장 및 고령의 영업자 음식점을 위주로 사전 1:1 현장 맞춤형 기술을 지원하고, 개선이 필요한 노후된 주방시설의 환경개선비용 일부도 지원할 예정이다.

동시에 위생등급 업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고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지난해까지 등급을 받은 음식점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현장평가를 실시해 등급별 지정기준이 미달되는 업소는 부적합 처리 및 지정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위생등급 업소를 시민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위생수준이 우수한 음식점 지도(food-gis)’ 시각화 작업도 펼쳐 나갈 계획이다.

김석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을 확대하고 시민들께서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 정보를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홍보” 하겠다고 하며, “위생등급 지정을 받은 업소가 자긍심을 갖고 운영할 수 있도록 우대 혜택을 지원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 <관련사진> 음식점 위생등급 표지판

